

과실 품질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여름철 과수원 관리기술



책임운영기관
농촌진흥청
국립원예특작과학원



사과

- 웃자란 가지 제거와 유인으로 나무 내부의 광 환경 개선, 꽃눈 형성 촉진
※ 특히 결실량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환상박피, 단근 등의 적극적인 수세조절 필요
- 토양 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여 과실비대 촉진 및 수세 안정
- 고온기 일소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우려 시, 미세살수 장치 가동, 간이 차광망 설치, 탄산칼슘 살포
- 부란병, 탄저병, 갈색무늬병, 겹무늬썩음병, 심식나방류, 응애류, 노린재 등의 병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



〈탄산칼슘 살포 후 사과 모습〉



배

- 주지·부주지의 측면에서 발생한 새가지는 20~40° 각도가 되도록, 끈·클립 등을 이용하여 7월 상·중순경 유인작업
- 적절한 관수·배수로, 급격한 토양수분 변화가 없게 관리하여 뿌리 활력 증대
- 겹무늬병, 검은별무늬병, 진딧물, 가루깍지벌레, 응애, 복숭아순나방 등 중점방제



〈배 새가지를 유인한 모습〉

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원 관리방법

- (사과) 아상, 적심, 적엽은 삼가고 유인 위주 관리, 가위 등 관리 도구 소독 철저
- (배) 고접, 적심, 순따기 작업은 삼가고 유인 위주 관리, 고접 도구 및 가위 소독 철저
- (공통) 외부인 과원 출입제한, 조류 산태지 등 야생동물 접근 차단



복숭아

- 주지, 부주지 일소피해 예방을 위해 새가지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해가림 가지 활용
- 새가지 일부를 적심하여 내년도 결과지 확보
- 과실 성숙기에 토양이 과습하거나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수분 유지관리
- 세균구멍병, 탄저병, 심식나방 등 중점방제



〈복숭아 탄저병 증상 모습〉



포도

- 착색기 이후에도 적정관수량 유지해야 착색·당도 향상
※ 적정관수량 : 20톤/10a, 간수간격 : 5일
- 결순 발생 시 제거, 강하게 자라면 간벌
- 고온기에 하우스 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지 않게 천·측창 개방, 집중호우 대비 원활한 배수 관리
- 갈색무늬병, 노균병, 탄저병, 가루깍지벌레 등 중점방제



〈포도의 봉지재배 모습〉



감 굴

- 온주밀감은 하우스내 고온 시에 착색이 지연되므로, 측창 개방으로 온도상승 방지
- 일소피해 예방을 위해 차광망 설치, 환기
- 강한 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방풍시설 설치
- 궤양병, 굴굴나방, 검은점무늬병, 블록총채벌레 등 중점방제



〈감굴이 바람에 의해 상처입은 모습〉



단 감

- 신초·도장지는 적당히 유인하여 해가림 가지로 활용하여 과일 일소피해를 방지하고, 내년도 결과지로 활용
- 적과는 생리적 낙과가 종료된 이후 실시
- 양수분의 균형을 유지하여 꼭지들림과 예방
- 탄저병, 둥근무늬낙엽병, 감관총채벌레, 깍지벌레, 감꼭지나방, 노린재 등 중점방제



〈단감 일소과 모습〉